



▲ 행사후 기념촬영 장면



▲ 연찬회 진행 장면

환경기술인연합회, 연찬회 개최 및 새만금 시찰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북 부안 채석강리조트 유스호스텔에서 2008년도 제2차 이사회 및 임원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천상 연합회장과 이성호 전임회장을 비롯 연합회 임원과 지역협의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25일 오후 4시에 전북도청 환경정책과 한웅재 과장의 '전라북도의 환경관리실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17시에 연찬회 2008년도 제2차 이사회를 거쳐 저녁 19시부터 만찬이 이어졌다. 이사회에서는 환경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이 집중 거론돼 참석자들의 관

심을 모았다. 한 임원은 "환경분야 만큼은 타 부처와 달리 규제가 오히려 강화돼야 국제 경쟁력 및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수질TMS 제도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모순을 설명했다. 그는 "속도 위반을 하는 차량

을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속도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수질TMS제도는 사업자가 자비로 계측기를 설치하고,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도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지한 회의가 2시간 가량 진행된 후 저녁만찬에 들어갔다. 만찬시간에는 상호 상견례와 함께 연합회와 지역협의회와의 현안사항 토론과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날 이들은 조식 후 9시에 집결하여 '왕의 남자'와 '이산' 촬영장인 부안세트장을 구경하고 곧바로 새만금 시찰에 나섰다.

새만금방조제는 아직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초입까지만 허용되고 있으나, 연합회 임원들은 전라북도의 도움 아래 방조제 중간지점인 탐조대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환경인이라면 한번쯤은 다녀올만한 곳이라 일행들은 관심있게 설명도 듣고 주변을 관찰했다.

시찰을 마치고 일행은 지역특산음식인 바지락죽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1박2일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각자 생활터전으로 복귀했다. (K)



▲ 전북 환경정책과 한웅재과장 발표장면